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제570호

지면안내 03 사회
빈틈 보이는 '스토커차별법'

04 기획
학생 대신 한숨만 가득한 상점

05 사람사
재미를 찾아 끝없이 도전하는 사람, '라돈' 오서빈 대표

08 광고
제36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트랙 구조조정 논의, 대상은 미정

학생대표 간담회 두 차례 진행 일부 트랙 여전히 반대 목소리

올해 초 트랙 구조조정이 된 이후, 또다시 일부 트랙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논의 중인 트랙은 ▲제품·서비스디자인트랙(주) ▲글로벌역사트랙(야) ▲지능시스템트랙(야) ▲ICT융합엔터테인먼트트랙(주·야) 등 총 5개다. 단, 해당 트랙 모두 '논의 대상'일 뿐 통폐합 등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트랙 구조조정은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된다. 지난 2일 열린 1차 '트랙 구조조정 관련 학생대표 간담회' (이하 간담회)는 두 차례의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실시됐다. 1차 간담회는 각 학생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위원회는 1차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추가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대학본부는 지난 15일 2차 간담회를 열었다.

'제품·서비스디자인트랙(주)'은 '트랙 신설, 변경, 통합, 폐지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 트랙 신설·통합 후 2학년부 4학년까지 편제가 완성된 연도부터 재학생 수가 4월 1일 기준 2년 연속으로 주간 45명, 야간 30명 미만이면 해당 트랙을 폐지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제품·서비스디자인트랙(주)은 202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2년 연속 재학생 수가 미달됐다.

윤솔비(ICT 3) ICT디자인학부 학생회장은 세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트랙 구조조정 기준에 휴학생이 포함되지 않는 현 세칙은 군휴학 학생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실제로 ICT디자인학부 학생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제품·서비스디자인트랙은 제1·2트랙을 합하고 휴학생까지 포함한 총 재적 인원 84명 중 휴학생이 25명으로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 회장은 디자인대학의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제품·서비스디자인트

랙은 수업 특성상 실기 비중이 높아 양질의 수업 유지를 위해 소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 회장은 "현재 제품·서비스디자인 트랙의 수업은 교수님과 학생 간의 피드백이 매우 이뤄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조문석 기획조정처장은 "재적 인원이 아닌 재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현 세칙에 따라 구조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소수로 진행되는 실기 수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다. 해당 내용을 교무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역사트랙(야)'은 세칙 제5조 제1항 제1호, 트랙 신설·통합 후 처음으로 해당 트랙을 선택한 신입생 수"가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 연속 주간 15명, 야간 10명 미만일 경우 해당 트랙이 폐지되는 조항에 해당했다. 글로벌역사트랙은 2019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2년 연속 신입생 수가 미달돼 구조조정 대상 트랙이 됐다. 이어 202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재학생 수도 미달돼 이번 구조조정 논의 대상에 올랐다.

글로벌역사트랙 학생회 측도 트랙 구조조정 재고를 요청했다. 김찬울(인문 3) 글로벌역사트랙 트랙장은 "재학생이 남아 있지 않을 때 트랙 폐지 절차가 완료되는 세칙 조항과 일정 수강 인원 수가 미달될 강 의가 폐강되는 규정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 트랙장이 지적한 부분은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처장은 "일정 수강생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폐강이 원칙이지만 학생의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과목 이수 완료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트랙장은 이번 트랙 구조조정과 관련해 학생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트랙제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트랙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예측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간 트랙만 폐지 될 경우, 야간 학생은 주간 학생에 비해 선택의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본부는 김 트랙장의 의견을 기획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지능시스템트랙(야)'은 제품·서비스디자인트랙(주)과 마찬가지로 2년 연속 재학생 수가 미달됐다. 'ICT융합엔터테인먼트트랙(주·야)'은 글로벌역사트랙(야)과 동일하게 신입생 수와 재학생 수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IT융합공학부 학생회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의사항을 제기하지 않았다. 학생 수가 미달되고 타 트랙과 교육과정 유사한 지점이 트랙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는 근거로 작용했다.

IT공과대학 학생회 측 역시 트랙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는 한편, 재학생을 위한 원활한 운영을 요청했다. 배기빈(산업경영 4) IT공과대학 학생회장은 "현재 구조조정 논의 대상이 된 트랙의 학생들이 휴학생, 트랙 변경, 전공 과목 및 학점 인정 범위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본부가 학교 공식 홈페이지 공지와 더불어 해당 트랙의 학생에게 개별로 통보해주시길 당부한다. 학생들의 수업과 졸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본부는 지능시스템트랙과 ICT융합엔터테인먼트트랙 학생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보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성욱 교무처장은 "아직 트랙 구조조정 대상에 대해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일부 트랙이 구조조정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후 검토한 뒤 학교가 적극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트랙 구조조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최종 승인을 남겨둔 상황이다. 확정된 트랙 구조조정 결과는 트랙 신청 및 변경 기간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조 처장은 "학생이 염두해둔 트랙이 구조조정된다면 선택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소한 2주 이상의 생각할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개별 학생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재학생 수 : 제1트랙 및 제2트랙으로 선택한 인원의 합계
** 신입생 수 : 제1트랙 및 제2트랙으로 선택한 인원의 합계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조문석 기획조정처장

본교 총학생회 방역수칙 위반

총학생회(이하 총학)에서 상주 인원 4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음식점을 찾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경택(컴공 4) 총학생회장은 지난 12일 학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 입장문을 게재했다.

제보에 의하면, 총학 소속의 한 학생이 선별진료소를 찾았음에도 당일 저녁에 안내 지침을 어기고 다른 총학의 일원을 만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학생은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자는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익명의 학생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총학은 에타에 글이 올라오기 전까지 이번 사안을 묻어두려고 했으며, 무엇보다도 임원단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학 측은 방역수칙 위반 시 징계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방역수칙 위반 사례와 관련한 신고 연락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상욱(학생장학팀) 팀장은 "보건 소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사례와 관련해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만약 방역수칙 위반 시 교내 징계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어기고 음식점에 방문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전했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2021년 제15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지원 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주 제 | 10. 4(월)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접수 기한 | 10. 4(월) ~ 10. 22(금) 오후 5시

온라인 예심 자료 제출 기한 | 10. 29(금) 오후 5시

본 선 | 11. 11(목) 오후 4시 (장소 추후 안내)

접수 방법 | ① '글쓰기센터 홈페이지 - 대회 -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 '대회 신청'에서 직접 신청
② 신청한 주제에 대한 PPT 자료(pdf 저장본), '슬라이드 쇼 녹화' 기능으로 제작한 발표 영상(7분±30초)을 예심용 자료 제출 기한 내에 이메일 발송 (contest4354@hansung.ac.kr)

상금 및 비교과포인트

영역	시상 내역	상금	비교과포인트
입상	최우수상 (1위)	80만원	100점
	우수상 (2-3위)	각 30만원	각 80점
	장려상 (4-6위)	각 10만원	각 60점
기타	대회 접수 (참가)	-	40점

문의사항 | 한성대학교 사고와표현과정 글쓰기센터 02-760-4354

한성대학교 글쓰기센터 홈페이지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사고와표현과정

큰 산 넘은 본교,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일반재정지원 대학 최종 확정 내년 3월 자율혁신계획 제출 신입·재학생 유지충원율도 점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9월 3일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3주기 평가)'에서 본교가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최종 확정됐다. 3주기 평가 결과에 따라, 본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은 '자율혁신계획'과 '유지충원율' 점검을 마쳐야 한다. 본교 역시 내년 3월까지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율혁신계획은 적정 규모화를 포함해 일반재정지원금을 통한 대학의 혁신 방안을 밝히는 계획이다. 여기서 적정 규모화란 대학의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정원 감축 규모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조문석 기획조정처장은 "적정 규모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매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한다. 유지충원율이란, 대학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얼마나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지표다. 이는 대학의 심화된 신입생 미충원 문제를 해결을 위해 마련된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지충원율의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할 예정이다.

만약 정원 감축 권고를 미이행할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의 페널티가 부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감축 권고 대학의 범위는 권역별 하위 30~50% 정도로 설정될 예정이다. 지역 여건과 자체 정원 조정 규모를 고려해 감축 권고 대학의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수도권 지역 84개의 일반재정지원 대학 중 25~42개 대학은 정원 감축이 이뤄지게 된다. 본교 역시 유지충원율이 상위 50~70% 안에 들지 못하면 정원 감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교는 올해 하반기 '2022~2024년 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이 공개된 후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 처장은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이 우선이다. 학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3주기 평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눠 진행됐다. 일반대학 평가는 ▲발전 계획의 성과 ▲교육 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 성과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발전 계획의 성과'는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우수한 성과를 도출했는지 점검하는 항목이다. 본교는 작년 시행된 비대면 수업에 맞게 온·오프통합교육과 비대면 수업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을 포함한 발전 계획이나 전략을 수정했다.

'교육 여건' 항목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평가된다. '전임 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이 주요 지표다. 본교는 학기마다 전임교원 확보율을 검토해 인원을 충원했으며, 외부재정사업

을 통해 교육비 환원율을 높였다.

'대학 운영의 책무성'은 '법인 책무성'과 '구성원의 참여·소통'을 점검하는 항목이다. '법인 책무성'은 '법인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과 '법정부담금 부담률' 중 높은 지표가 평가에 반영된다. '법인 전입금'은 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이며, '법정부담금'이란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본교의 경우, 법인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로 법인 책무성을 점검받았다. 또한 '구성원의 참여·소통'을 위해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 이사회 운영 및 회의록 공개 ▲학생대표 정기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한성희망장학금 지급 ▲학사제도 개편 등을 진행했다.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은 대학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관리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생 평가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본교는 창의융합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캡스톤디자인 운영을 확대한 바 있다. 또

한 상상파크와 같은 창의융합교육 중심의 복합교육 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의 학습을 도왔다.

대학이 학생에게 ▲학생 학습 역량 ▲진로·심리 상담 ▲취·창업 지원 등을 적절히 제공했는지 확인하는 '학생 지원' 항목도 있다. 본교는 학생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ALEKS'나 고교과 프로그램인 'HSP' 등을 개설했다. 학생에게 양질의 '진로 상담'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성공센터와 학생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취·창업 지원을 위해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성과'는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율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특히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은 2주기 평가에 비해 3주기 평가에서 점수 비중이 2배 상승해 주요 항목으로 작용했다. 최윤석(전략기획팀) 팀장은 "우리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은 평가기준 이상"이라며, "재학생 충원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도 탈락율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하반기 1차 대의원총회서 중앙기구 예산안 확정

'2021학년도 하반기 1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지난 17일 열렸다. 이번 총회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소속 학생회 예산 인준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총회에는 대의원 38명 전원이 참여했다. 모든 예산안은 재적 대의원 중 과반의 찬성을 받았으며, 이날 2021년도 하반기 예산으로 총 30,907,080원이 인준됐다.

총학생회는 총 11,768,000원을 승인받았다. 예산안 세부항목에는 MR/MRS 한성, 낙산체전, 온라인축제, 전국대학생네트워크 분담금,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총대의원회(이하 총대)는 상임위원 감사 OT, 우수대의원 선정, 총대 감사 상임위원, 총선거,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의 항목으로 총 3,293,900원을 책정받았다.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는 하반기 예산안으로 총 6,043,880원을 인준받았다. 세부항목으로는 학복위 대여사업, 마스크 제공 사업, 9월 추석 이벤트, 시험기간 응원 간식 사업(중간고사/기말고사), 한성인은 건강하라 이벤트, 한성 알코올팔찌 제작, 금연구역 포스터 제작, 11월 11일 이벤트,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동아리연합회의 예산은 총 737,500원으로 책정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방구석 1열 이벤트, 해시태그 이벤트,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으로 구성됐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학생회는 시험기간 간식사업, 명탐정 '공감', 행사 상품, 문화사업, 프린트 지원 사업,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에 대해 총 2,094,700원을 승인받았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총 2,290,100원을 인준받았다. 이는 중간·기말고사 간식 사업, 카카오톡 채널 캐시, 중간

고사 시험기간 격려 물품사업, 2학기 브이로그 공모전, 사회과학대학 라디오, 프린트 지원 사업,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디자인대학 학생회는 총 2,124,000원을 책정받았다. 예산안 세부항목에는 중간·기말고사 간식 사업, 물품 지원, 프린트 지원, 개강 행사, 문화의 날 행사, 할로윈 행사, 사업예비비, 일상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IT공과대학 학생회의 하반기 예산안은 시험기간 간식 사업, 한글날 이벤트, 대외활동후기 이벤트, 2022버티 리스트, 사업예

비비, 일상운영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총 2,555,000원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의원 오리엔테이션도 함께 진행됐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총대 의장은 대의원의 역할을 설명했다. 대의원은 크게 예산안 인준 및 학생회칙 개정 등에 참여하게 된다. 차원식(스마트4) 총대 의장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앞으로 진행될 예산안 회의나 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총회 진행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학사구조 고도화' 토론회 개최

지난 16일 학사제도 및 전공 트랙제의 고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웹엑스(Webex)로 진행됐으며, 이창원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 관계자와 각 단과대학 학장, 교수, 재학생 등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총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교육부의 정책이 바뀌게 되면서 본교의 학사제도 역시 새로운 변화 시점에 놓여 있다"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대학본부의 발표 ▲각 단과대학 학장의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본부는 학사구조 정책에 대해

이야기한다. 창의융합대학의 특성화학과가 신설되면서 본교는 트랙제와 학부(과)제가 공존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하성욱 교무처장은 "학문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원방안이 확대돼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또한 본부는 학사구조 고도화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 운영 지원, 평가 및 환류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도 발표했다. 조문석 기획조정처장은 "새로운 교육과정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각 단과대학 학장들은 '소속 단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총장은 "본교는 오늘 논의 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우리 대학의 학사구조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경택(컴공 4) 총학생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가 지향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를 알 수 있었다.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김자윤 기자 jizhey@naver.com

'학생원스톱지원센터' 개설 예정

오는 10월 1일 '학생원스톱지원센터(이하 원스톱센터)'가 신설된다. 학생은 상상관 1층의 원스톱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및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원스톱센터는 본교 홈페이지 'Q&A'와 같은 기존 민원시스템의 답변이 늦어지거나, 담당 부서가 모호해 해결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설됐다.

원스톱센터의 주 업무는 '민원서비스'다. 민원서비스에는 분실물 처리, 증명발급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학생생활팀에서 관리하던 '분실물 처리'와 '증명발급' 등의 기타 민원도 원스톱센터에서 관리하며, 그동안

여러 부서가 나누어 담당할 학생 건의사항을 모두 원스톱센터가 처리한다. 원스톱센터에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의 경우, 담당부서로 이관된다. 원스톱센터는 담당부서가 최종 답변을 할 때까지 전체적인 민원처리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원스톱센터는 이번 학기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내년 3월 정식 출범된다. 김양진(학생원스톱지원센터) 부센터장은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학생의 민원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희 기자 monica6610@naver.com

'학사복 공모전' 참가자 모집

오는 10월 15일까지 학사복 공모전이 진행된다. 본 공모전은 총학생회와 학생생활팀이 공동 주최하며,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기획됐다. 공모전 주제는 '한성대학교의 정체성'이다. 본교 재·휴학생은 물론 졸업생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개인 혹은 4인 이내의 팀으로 참가 가능하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1차와 2차 심사를 통해 진행된다. 1차 심사에서 3~5팀의 디자인이 선정되고 선정된 디자인에 한해 2차 심사가 이뤄진다. 2차 심사에 한해 교내구성원의 투표가 동반될 예정이다. 결과는 추후 본

교 홈페이지와 합격자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된다.

시상은 ▲대상(1팀) ▲우수상(1팀) ▲장려상(1팀)으로 이뤄진다. 순위에 따라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또한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재학생에게 비교과 20pt가 지급되며, 졸업생에게는 대학 홍보 기념품이 제공된다.

박태민(학생생활팀) 팀원은 "학생이 만족할 만한 학사복을 제작하고자 기획됐다. 학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자윤 기자 jizhey@naver.com

'심리검사데이' 프로그램 진행

본교 학생상담센터가 지난 9월 7일부터 심리검사데이 프로그램(이하 심리검사데이)을 진행하고 있다. 심리검사데이는 자기이해와 타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상담 및 심리검사에 관심을 갖게 하고자 기획됐다.

본교 재학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각 프로그램당 150명이다. 심리검사데이는 이번 학기 총 4번 운영된다. 자세한 일정 및 신청 방법은 본교 홈페이지 비교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은 ▲사전검사 신청서

작성 ▲심리검사실시 ▲해석 워크샵 참여 ▲만족도 설문조사 및 사후검사 ▲감상문 제출 등으로 이뤄진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활동 내역에 따라 5~20pt의 비교과 포인트가 차등 지급된다. 모든 프로그램을 완료한 참여자는 최대 80pt의 비교과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김효신(학생생활상담센터) 연구원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상담과 심리검사에 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참여를 도모했다.

박성희 기자 monica6610@naver.com

hansungnews



한성대신문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빈틈 보이는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오는 10월 시행 피해자 보호 미흡하다는 지적 한계 보완할 개정 이어나가야

지난 4월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톱킹처벌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스톱킹범죄의 가해자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스톱킹처벌법 제정은 1999년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후 22년 만의 결실이다. 이후 2012년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스톱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지만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사유에 해당돼 고작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용될 뿐이었다. 스톱킹처벌법에 따라 스톱킹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톱킹범죄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톱킹행위로 간주된다.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법원의 선고가 법정형만큼 이뤄지지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법정형이 중형 수준으로 규정된 것은 의의가 있으나 실질적인 판결의 선고가 의문

이라는 말이다. 이창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정형보다 선고 형이 훨씬 약한 관행이 문제다. 실제로 3년의 징역이 선고되면 중형으로 처벌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경(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시 “법정형은 낮지 않으나 정해진 법정형만큼 선고가 이루어지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경찰의 직권으로 즉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한 ‘긴급응급조치’도 생겼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이 스톱킹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신고자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다. 현행법으로는 피해당사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접근 금지 신청이 가능하며, 접근이 금지되기까지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긴급응급조치는 현행법에 비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긴급응급조치의 시행은 피해자에게 통지되지 않거나 취소 혹은 변경에 대해 피해자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다.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톱킹행위의 접근금지 등이 취소된다면 무방비 상태에서 서로 맞닥뜨릴 수 있다.

스토킹행위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초기 대처가 중요한 스톱킹범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장우현(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단순히 처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긴급응급조치는 스톱

킹 초기 대응 중 하나의 방법인데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부과 정도라면 끝나는 것은 조치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 포함된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와 고소 취하 등을 강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조항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한국여성전화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스톱킹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토킹 피해 경험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반의사불벌죄는 보복성 2차 피해를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스톱킹처벌법의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번 법안의 가장 중요한 입법 목적이 피해자 보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법률명에서도 알 수 있듯, 이번 법안은 가해자 처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지난 6월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는 반의사불벌죄 조

항이 삭제됐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과 고용 상황에서 일어나는 스톱킹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 담겨있다. 남 의원은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 마련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빠른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스톱킹처벌법 제정은 ‘늦어도 한참 늦은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은 1990년, 영국은 1997년, 일본은 2000년부터 스톱킹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의 처리가 미뤄지는 사이, 수많은 피해자가 희생당했다. 권영세(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톱킹범죄 신고는 최근 3년간 매해 5천 건 내외로 접수됐다. 스톱킹범죄는 참혹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KBS가 2018년 전국 1심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진 살인과 살인미수 사건 381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중 약 30%가 스톱킹범죄로 시작됐거나 스톱킹범죄의 정황이 있었다. 한 교수는 “스토킹을 범죄행위라고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는 신중론에 밀려 입법이 지연됐다. 결국 스톱킹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기까지 스톱킹범죄로부터 야기된 여러 피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수차

레 개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장 교수는 “20여 년의 논의를 거쳐 제정됐지만 제정 자체로 의미를 찾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물론 법 시행 이전보다는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나올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 교수 또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고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 개정 논의가 적극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혜정 기자 hj716@hansung.ac.kr



부족한 지원 속 모두를 위협하는 HPV

대상 확대했지만 실효성 떨어져 성인 남녀로 접종 지원 확대해야 백신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해

국내 HPV(Human papillomavirus, 인유두종 바이러스) 관련 질병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HPV 예방백신(이하 HPV 백신)은 외면받고 있다. 이에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PV는 사람의 피부나 피하를 통해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 생식기 사마귀, 고환암, 항문암, 두경부암 등이 주요 원인이다.

국내 HPV 관련 질병을 앓는 환자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HPV 관련 질병인 자궁경부암의 환자 수는 2016년 57,164명에서 2020년 61,892명으로, 최근 5년간 환자 수는 약 8% 상승했다. 국내에 보급된 ▲서바릭스 ▲가다실4 ▲가다실9 등의 HPV 백신을 접종하면 관련 질병을 예방할 수 있지만, 백신 접

종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19일 HPV 백신인 서바릭스와 가다실4의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도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 이러한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무료 접종 대상이 ‘여성’에게 국한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HPV는 주로 성행위로 인해 전파되기 때문에 남녀 모두 백신을 접종해야 집단 면역의 효과를 볼 수 있다. OECD 36개국 중 35개국이 HPV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했으며, 이 중 18개국은 남아에게도 백신 접종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 정민형(경희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남녀 모두가 맞아야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동일 연령의 남성 청소년이 빠진 불안정한 백신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수현(강남차병원 산부인과) 전임의도 “자궁경부암 및 각종 질병을 예방하려면 남녀 70% 이상의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 비용 지원이 전무한 것도 문제다. 이기현(일산차병원 부인 중앙센터) 센터장은 “고가의 백신 접종 비용

에 대한 항제를 가진 가다실9의 2020년 1회 접종 비용은 병원예 따라 119,686~260,000 원이었다. 이마저도 백신을 공급하는 한국 MSD가 가다실9의 가격을 15% 올렸다. 즉, 3회 접종이 권장되는 성인이 백신 접종받기 위해선 대략 60~7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정 교수는 “국가의 경제적 여력을 고려해 접종 지원 대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진행한 HPV 백신 미접종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료 접종 지원 사실을 알면서도 접종하지 않은 응답자 중 73.5%가 백신의 부작용을 걱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려와는 달리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적다고 말한다. 질병관리청이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으로 국가예방접종 도입 후 여성 청소년에게 약 180만 건의 HPV 백신을 접종했지만, 이상 반응 신고는 122건(0.007%)밖에 되지 않는다. 122건의 부작용도 접종 부위 통증, 부어오름과 두드러기, 긴장으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 등이 대표적이었다. 대부분 치료 없이 빠르면 수분 내, 늦어도 수일 내에 회복됐다. 정 교수는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으로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HPV 백신이 보편화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백신에 대한 인식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 전임의는 “성 경험의 시작 나이가 빨라진 만큼 국가 백신 무료 접종 시기를 12세에서 11세로 낮추거나 접종 대상을 남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며 “인식 개선을 위해선 성교육 및 HPV 백신 관련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ngjihun30@gmail.com



도 HPV 백신 접종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성인은 비급여 항목인 HPV 백신의 접종 비용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한다. 심평원이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HPV유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 속 사회적 합의 필요성 대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의 처리를 다루는 국회 본회의가 오는 27일 진행된다. 본래 지난 8월 예정이던 본회의 상정은 개정안 내용이 여러 논란에 휩싸이면서 연기됐다.

개정안 제30조의2에 따르면,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액배상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배액배상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문제로 제기됐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정부직공무원 및 후보자 등과 관련한 보도에는 배액배상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의 모든 사람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최서원 등 정·재계 인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언론사에 소송이 제기되면 후속 보도 역시 이어지기 어렵다. 개정안은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규정하는데,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 중 하나가 ‘반복적인 보도’기 때문이다. 언론계는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을 위축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반대의 목소리가 큰 언론계와 달리 국민의 반응은 평평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3%의 응답자가 개정안에 긍정적이었고 46%가 부정적이었다. 박성운(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는 “클릭수 경쟁에 매몰되는 현상 등 언론의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서 허위·조작 정보나 혐오·차별 보도의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누적됐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언론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언론계 내부에서는 자정 기능을 통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27일 발표된 ‘언론현황5단체 공동 기자회견문’에는 언론 내부의 자정 기능을 작동케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희수에 매달린 기사,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기사 등 현재 지적되는 언론의 폐해는 법과 제도로 처벌해 사라질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에서다.

전문가들은 특정 정계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지금의 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점진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도출돼야 함을 강조했다. 언론개혁은 언론계와 학계 및 정치계는 물론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박 이사는 “법의 개정 취지에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크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언론 피해 구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혜정 기자 hj716@hansung.ac.kr



청년이 묻고 현장이 답하다

나 말고 다른 사람. 그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그에게 묻는 것보다 그가 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던가. 종이에 적힌 자료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현실적이다. 나를 그로 바꾸기 위해 신문사 밖으로 향한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생생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와 함께 개강을 맞이한 것도 벌써 4학기 쯤이다. 비대면 강의가 계속돼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자, 교내상점은 매출이 급감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교내상점의 풍경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본교 구내서점, 출력센터, 팔고당을 방문해 교내상점이 처한 현실을 취재해봤다.

김지윤 기자 jizhejy@naver.com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학생 대신 한숨만 가득한 상점

우측관 1층 구내서점

오전 8시 30분. 구내서점의 하루가 시작된다. 서점 사장은 8시 20분에 출근해 환기를 하고 쌓아둔 책을 정리한다. 대부분의 강의가 비대면이라 그런지 학기 초반임에도 서점을 찾는 학생이 없다. 서점 사장이 책을 정리하며 말을 건넨다. “코로나19가 없을 때는 개강 초에 학생들이 언덕까지 줄을 서서 책을 사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을 보기 어렵네요”

문을 연 지 3시간 30분 만에 처음으로 두 학생이 구내서점을 방문한다. 한 학생은 경영학 교재를, 같이 온 친구는 검은색 절연 테이프를 구매한다. 코로나19 이후 교재 판매량이 급격히 줄었다. 과거에는 강의교재를 100원 넘게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고작 10권씩만 발주를 넣는다. 심지어 문구류는 거의 판매되지 않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새로운 상품을 주문하지 않았다. 서점에 정기적으로 배달되는 문구 홍보 팸플릿은 구석에 쌓여만 있다.

“따링” 서점 사장의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다는 알람이 울린다. 서점 사장은 서둘러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아 직접 서점을 방문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그러자 구내서점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책을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1학년 영어교재 있나요?”라는 문자 메시지에 “책이 있다고 답장을 보낸다. 학생이 문자 메시지로 다시 묻는다. “얼마인가요?” 또다시 서점 사장이 답장을 한다.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주문이 확정됐다.



▲학생에게 보낼 책에 주소를 적고 있는 구내서점 사장

주문받은 책을 찾아 에어캡으로 싸서 포장 봉투 안에 담는다. 택배 운송장에 주소를 적어 포장 봉투 위에 붙인다. 우체국에 보내기 전 포장된 책의 사진을 찍는다. 주문한 학생에게 사진을 보내 책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서점 사장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주문을 받아 책을 판매하는 일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한다. “클릭 몇 번으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는 온라인 서점과 달리 주문을 받고 보내는 과정이 번거로우요. 하지만 서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오전 시간 동안 서점에서 판매된 제품은 책 6권과 테이프 1개가 전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구내서점의 매출은 과거 대비 80%나 감소했다. “지난주에는 택배로 보낼 책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 주는 거의 없네요.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용하는 사람이 더 없을 거예요. 서점을 운영해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아 요즘엔 문을 일찍 닫아요”

미래관 지하 1층 출력센터

오전 9시 30분. 교내 출력센터에 불이 켜진다. 출력센터 유리창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영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지만, 최근엔 9시 30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퇴근 시간이 5시 30분으로 앞당겨졌다. 출력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이 없다 보니 늦게 출근하고 일찍 문을 닫는다. 출력센터의 주인이 기자에게 말을 건넨다. “몸은 조금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답답하죠”

오후 1시가 됐지만, 출력센터를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출력센터 사장은 여전히 홀로 카운터에 앉아 손님을 기다린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1명 고용했으나, 업무도 없고 매출도 줄어 함께 일하기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인쇄 주문이 물밀듯 들어왔다. 교수들은 강의 교재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학생들은 파일로 제공된 강의 자료를 인쇄하러 왔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다. 교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책자와 현수막 제작도 모두 출력센터의 몫이었으나, 행사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돼 관련 의뢰가 80% 가까이 줄었다.

영업을 시작한 지 4시간이 지나서야 한 학생이 출력센터로 들어선다. 오늘의 첫 손님이다. 한 시간가량 더 지켜봤지만, 더 이상 출력센터를 찾은 이는 없었다. 센터 바로 옆에서 무인 출력 PC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역시도 한 명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출력센터를 4년째 운영 중인데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70% 이상 감소했어요. 내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버텨야 해요” 주문해둔 인쇄 자재와 방치된 기계가 하루 빨리 바빠 움직이는 것이 출력센터 주인의 바람이다.

“교내상점의 어려움에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상상관 2층 팔고당

오전 8시에 문을 여는 팔고당. 직원은 7시에 출근해 당일 판매할 빵을 만든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판매하는 빵의 양은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판매량이 많은 날은 추가 제빵도 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만들어진 빵을 폐기하기도 한다.

요즘엔 점장과 직원 한 명이 출근한다. 과거 4명이 함께 일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매출이 줄어들자 인건비 문제로 출근 인원이 줄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등 손님이 몰리는 시간엔 두 명이 일하기 버거울 때도 있다. 오늘 출근한 직원은 제빵 담당이지만, 매장 사정상 커피를 내리는 일도 같이하고 있다.

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홀로 커피 단체 주문을 받은 직원이 손을 부지런히 놀린다. “업무 분담이 되지 않아 불편해요.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를 뽑

을 수 있지만, 잠깐 편하려고 새로운 인원을 뽑기는 재정상 힘들죠”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1시. 직원이 매장 입구 정면에 위치한 조리대에서 빵을 포장한다. 그 순간 여자 손님이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온다. 곧바로 그녀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춘 뒤 주문을 받으러 카운터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직원은 주문을 받기 전 손님에게 QR코드 인증을 안내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할 필요 없던 일이다. 종종 외부인들은 ‘상상관에 들어올 때 인증을 했는데 또 해야 하나며 따지기도 한다.

전화를 받으며 매장 문을 급히 연 한 남자가 매장 한쪽에 쌓여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바라본다. 곧이어 남자는 커피를 제조하고 있는 직원에게 묻는다. “혹시 매장에 앉아있지 못 하나요?” 직원이 머리를 긁적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매장 내 취식이 불가능하다. 매장 한편에 정리된 의자와 테이블을 본 뒤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도 허다하다. 의자와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던 5·6월과 비교해 매출도 2~3배 가까이 감소했다.

오후 1시부터 2시간가량 음료 36잔, 빵 4개가 팔렸다. “코로나19 이전엔 매출이 지금보다 최대 5배 정도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오늘은 그나마 사람이 많은 편이네요. 하루 종일 음료를 고작 40잔밖에 팔지 못한 날도 있었어요” 본사에서 4시쯤 매장을 닫으라고 권고했지만, 팔고당은 6시까지 영업한다. 그사이 오는 한두 명의 손님이라도 더 받기 위해.



▲오전 9시 16분. 불이 꺼져있는 출력센터

재미를 찾아 끝없이 도전하는 사람, ‘라돈’ 오서빈 대표

19년 전, 어느 한 초등학교생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에 진학하고 싶다. 그리고 내 꿈은 미술학 교수다.” 초등학교 6학년이 작성한 일기라고 하기엔 꽤나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구절이다. 일기를 작성한 아이는 목표를 성취해냈다. DIY 키트, 연구소 라돈(RADON)의 대표이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하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 중인 오서빈(30)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창업의 길에서 매력을 느끼다

오 대표는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했다. 동기들은 평탄한 미래를 추구하며 안정적인 기업 취직을 선호했지만, 그녀는 도전의 길을 걷기로 했다.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한 그녀는 석사 1년 차부터 창업을 시작했다.

그녀가 창업을 시작한 이유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가시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대학에서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형 창업부터 도전했다.

그녀는 ‘유아용품 개발’, ‘세프 요리 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아이টে이션으로 창업을 시도했지만, 아이디어가 부족해 연이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오 대표는 실패 속에서 좌절이 아닌 ‘재미’를 느꼈다. 특히, 직접 제작한 상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매력을 경험했다.

“저 자신을 표현한다면 재미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싶어요. 잠들기 전에 누웠을 때, ‘와, 이걸로 제품을 만들면 재밌겠다. 출근해서 바로 만들어 봐야지’라고 자주 생각하곤 해요.”

오 대표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টে이션을 찾아 해냈다. 그녀는 결국 스스로가 공감해야 세상도 반응함을 깨달았다.

“첫 제품 출시 이후, 사업 아이টে이션에 대한 공감이 어려워져 더 이상 발전된 아이টে이션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유아용품을 개발할 당시 저는 부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 엄마로서 뭐가 불편한지 직접적으로 느낄 방법이 없었어요. 제품 제작 과정에서 제가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을까 해요. 아이টে이션과 관련된 분야에 제작자가 흥미를 느낄 수 없다면 일을 지속하기도 쉽지 않죠.”

실패를 딛고 일어나 회사를 설립하다

그녀는 자신과 동떨어진 사업 아이টে이션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뒤, 새로운 창업 아이টে이션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오 대표는 제품에 대한 ‘공감’과 ‘흥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무엇이 생각을 곱씹었다.

프로젝트형 창업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사업을 추진하고 싶었던 그녀는 본격적으로 타겟층을 찾아 나섰다. 오 대표는 2030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아이টে이션을 찾기 시작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작은 취미를 갖는 것조차 ‘사치’로 여기는 직장인들의 현실에 오 대표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오 대표는 구매자가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 쉽고 빠르게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고민 끝에 결정한 아이টে이션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컬러링 키트였다. 2016년 당시 시중에 출시된 컬러링 키트는 2D 제품이 대다수였는데, 오 대표는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해 보다 특별한 제품을 제작했다.

“누구나 제작 가능한 제품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구매자가 2D 형태의 종이에 색칠하는 것보다 입체감 있는 3D 모형 아트토이에 색칠하는 과정에서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죠.”

그렇게 탄생한 브랜드가 바로 ‘라돈’이다. 라돈을 설립할 당시 그녀가 가지고 있던 초기 자본은 단돈 500만 원이었다. 사무실과 3D프린터를 마련할 수중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 라돈의 첫 사무실은 지하에 위치한 허름한 방이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사무실로 빗물이 새어 들어와 물을 파내며 작업하기도 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녀의 의지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자신이 만든 제품을 세상에 하루빨리 출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환경이 어떻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당시에는 스스로가 자랑스럽기만 했죠. 하루종일 일에 몰두하며 정말 열심히 일했던 시기였어요.”

고대하던 첫 사업이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바로 ‘복제품’의 등장이었다. 복제품은 기존의 제품을 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대로 본떠 만든 제품을 말한다. 쉽게 말해, 표절이다. 특허를 등록했다라도 유사성의 기준이 모호해 표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오 대표는 결국 복제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말한다.

“처음 복제품을 목격했을 때, 화가 많이 났어요. 열심히 고민하고 수정해서 만든 제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자연스럽게 복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제품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해요.”

경험을 쌓아 성공의 도약을 일궈나간다

그녀는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이টে이션을 꾸준히 발굴해왔다. 2016년에 설립됐을 당시 단 하나의 키트 상품으로 시



▲3D 모형 아트토이의 제작과정

작한 라돈은 현재 7개가 넘는 여러 종류의 키트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중에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 수익금의 일부가 기부되는 ‘기부전제형’ 제품도 있다. 반려견 카이를 모티브로 만든 ‘멍냥이 키트’와 그녀가 임신했을 때 개발한 ‘태교 키트’가 그것이다. 제품을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던 그녀의 바람이 담겼다.

다양한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도 그녀는 여전히 재미를 찾는다. 늘상 새로운 공모전에 도전하고 외부 업체의 의뢰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다. 최근에는 EBS에서 요청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아트토이로 제작 중이다. 과거 루이카포츠의 루이 14세와 공주·병정, CJ제일제당의 맥스봉 커플 캐릭터 등을 아트토이로 만들기도 했다.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과정이 즐거워요.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의뢰를 받는 일이 이제는 취미가 됐어요. 과정이 재밌다 보니 시간이 없더라도 되도록 모두 참여하려고 해요.”

오 대표는 바쁜 시간을 쪼개 강단에 서기도 한다.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그녀는 ‘제품디자인기초’, ‘표현기법’, ‘디자인 창업’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자신이 배웠던 디자인 지식과 그간 경험한 창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때때로 강연을 하기도 하는데, 한국과학기술원연차대회, 숭실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스타트업’을 주제로 강연한 바 있다.

“학생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사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

니예요. 무엇이든 도전할 일이 있다면 곧바로 실행에 옮기길 바라요. 대가 없이 쓸 수 있는 재산은 오롯이 ‘시간’과 ‘젊음’뿐이니까요. 잃는 건 시간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해요. 그리고 가장 잃을 게 없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죠.”

그녀가 사업, 공모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이유가 있다. 그녀는 여러 경험을 쌓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기보다 새로운 경험을 쌓으려고 해요. 나중에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해요.”

오 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성공을 일궈나갈 예정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그녀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부딪히고 깨지는 과정을 겪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CJ제일제당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3D 모형 아트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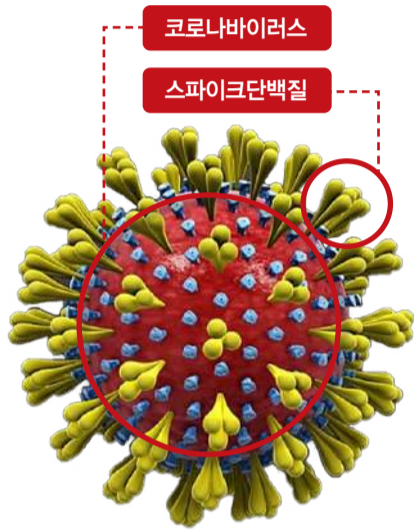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오서빈 대표



출처 : 라돈

우리 몸을 지키는 수문장, 면역체계

‘백신 맞았어?’라는 말이 안부 인사가 될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예방 백신 접종률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끔합니다’라는 간호사의 말과 곧이어 느껴지는 통증, 찰나의 통증으로 치료제도 없는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백신은 바이러스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질병에 걸리지 않게 면역반응을 일으킨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무엇이길래, 백신이 면역반응을 야기할 수 있을까?



무너지지 않는 성벽

면역은 바이러스와 세균 등의 병원체가 체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면역체계가 존재한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성 면역체계와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후천성 면역체계가 그것이다.

만약 체내에 병원체가 침입하면, 선천성 면역체계가 우선 작용한다. 선천성 면역체계는 병원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발현되는 비특이적 면역으로, 1차 방어 체계라고도 불린다. 피부·점막·분비액에 의한 방어, 백혈구의 식균 작용에 의한 방어, 염증 반응 등이 그 예다.

후천성 면역체계는 항원을 인식했을 때 발현되는데, 병원체가 곧 항원이다. 항원이 체내로 완전히 침입하면 림프구가 반응하기 시작한다. 독성 T림프구는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한다.

동시에 또 다른 T림프구인 보조 T림프구는 B림프구를 자극한다. 자극을 받은 B림프구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한다. 형질세포는 항체를 분비하는데, 이 항체가 항원과 결합해 항원항체반응을 일으킨다. 하나의 항체는 하나의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여기까지가 후천성 면역체계의 1차 면역반

응이다. 신경임(강원대학교 의예과) 교수는 “후천성 면역 반응의 결과로, 백신을 맞은 후 두통, 발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동일한 항원이 다시 체내에 침입하는 경우, 후천성 면역체계의 2차 면역반응이 일어난다. 이때, 분화했던 B림프구의 기억세포는 체내에 다시 침입한 항원을 재빠르게 인지하고 형질세포로 분화, 증식한다. 그 결과 더욱 빠르게 다량의 항체가 생성된다.

선행학습으로 단련된 부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

은 항원주입방식에 따라 mRNA*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나뉜다. mRNA 백신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정보를 바이러스 사체에 넣어 체내에 주입한다.

우리 몸은 체내에 들어온 mRNA를 항원으로 인식하고 리보솜에게 전달해 면역체계를 활성화한다. 그럼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때 만들어진 단백질이 바로 T림프구와 B림프구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에 주입해 체내에 투여한다. 인체에 무해하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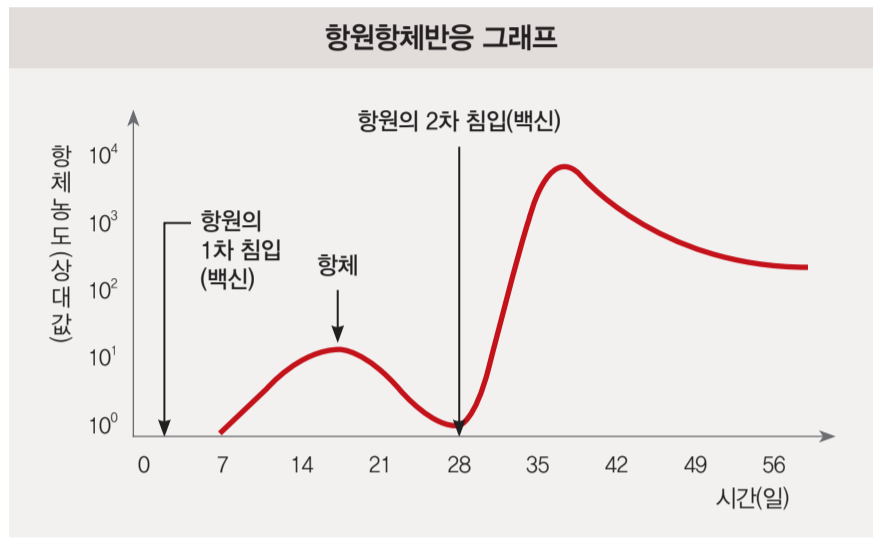
해도 외부 물질이 침입했음을 인식한 림프구는 항체를 생성한다.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면서 항체는 바이러스 내부에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확인하고 기억세포를 생성한다.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면 기억세포가 2차 면역 반응을 시작한다. 신 교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세포파괴가 없고 질환을 유발하지 못하는 변형된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한다. 아데노바이러스는 세포 내에서 코로나 항원을 발현하기 때문에 항원항체반응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떻게 체내에 완전히 침투할 수 있을까. 코로나바이러스는 주로 호흡이나 기침 등으로 체내에 들어온다. 코로나바이러스도 독자 생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숙주세포에 기생해야 한다. 폐와 심장에 존재하는 ACE2인 안지오텐신 전환효소2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다. 호흡기관을 통해 들어온 코로나바이러스는 ACE2에 달라붙는다. 장경립(부산대학교 미생물학과) 교수는 “바이러스는 물질대사와 에너지대사를 하지 못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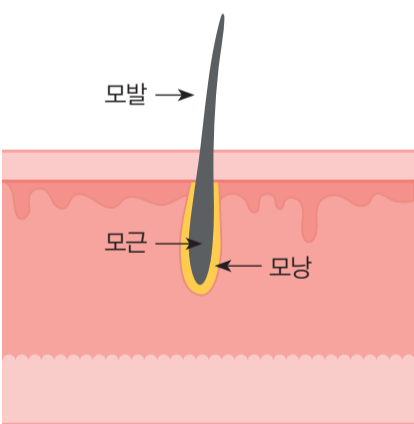
* mRNA : messenger RNA로 핵 안에 있는 DNA의 유전정보를 세포질 안의 리보솜에 전달하는 RNA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탈모

탈모는 유전이나 노화의 증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청년 탈모 발생률도 꽤 높다. 학내 커뮤니티에서도 탈모 고민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후유증으로 탈모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화제가 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탈모는 왜, 어떤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걸까?



탈모가 나타나는 이유

탈모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분에 머리카락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탈모로 인해 나타나는 질환을 탈모증이라고 하며, 모낭의 손상 정도에 따라 반흔성 탈모증과 비반흔성 탈모증으로 구분된다.

반흔성 탈모증은 화상, 외상, 세균감염 등으로 모낭이 파괴됐을 때 발생한다. 쉽게 말해 두피에 상흔이 생겨서 더 이상의 모발 재생이 어려워진 상태를 말한다.

반면 비반흔성 탈모증은 모낭이 파괴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여러 요인에 의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말한다. 윤태영(충북대학교 의학과) 교수는 “반흔성 탈모는 모발 주기가 파괴되지 않아 모발 재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비반흔성 탈모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남성호르몬’과 ‘스트레스’ 등이 있다.

누구에게나 발현 가능한 탈모

‘남성호르몬’에 의한 탈모는 5-알파 환

원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현된다.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과도하게 분비돼 모낭에서 5-알파 환원효소를 만나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으로 변화된다. 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모낭의 세포를 죽게 만들고 세포가 죽은 모낭은 모발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한다.

여성 역시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는다. 출산 혹은 폐경 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젠의 분비가 감소해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 비율이 증가한다.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의 생성 역시 증가하게 됨으로 탈모가 생길 수 있다. 주은영(경인여대 뷰티스킨케어과) 교수에 따르면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는 성별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이 가진 호르몬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했다.

다양한 원인을 가진 탈모

한편, ‘스트레스’도 비반흔성 탈모증을 유

발하는 요인 중 하나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코르티솔은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는데, 두피의 모세혈관이 수축되면 모낭이 넓어져 머리카락이 빠지기 쉽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코르티솔의 분비량은 줄어들고 모세혈관은 이완된다. 이때 모세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 모낭이 힘을 잃는다. 그 결과 탈모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모발주기 문제에 의해 탈모가 진행되기도 한다. 이를 휴지기 탈모라 부르는데, 모발 주기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반복돼 나타나는 탈모 증상을 말한다. 윤 교수는 “탈모 환자는 새롭운 모발이 자랄 때 가늘고 약하게 자란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유전을 통해 탈모가 진행될 수 있다. 부모가 탈모일 경우, 약 80%의 확률로 탈모증이 발현된다. 김두영(연세대학교 의학과) 교수는 “탈모 초기 증상이 시작돼

알아채기 어려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지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5-알파 환원효소: 테스토스테론을 환원하여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하는 효소

김지윤 기자 jizhey@naver.com



한성대신문 독자칼럼 모집

지원자격 | 한성대학교 재학생

주제 | 자유 주제

분량 | 제목 제외, 공백 포함 약 1,200자 (200자 원고지 기준 6매)

혜택 | 비교과 포인트 10pt 지급
칼럼이 학보에 게재될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모집기간 | 상시 모집

접수방법 | 한글 프로그램으로 칼럼을 작성하여 hansungnews@gmail.com 으로 제출
* 제출 시 칼럼제목/이름/학과 및 제1트랙/학년/학번/연락처/계좌번호 함께 기입

문의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신혜림 편집국장 010-8572-0334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 삼 학 송 ·

허점 드러난 트랙 시행세칙

올해 초 트랙 구조조정이 확정되면서 총 8개 트랙의 통폐합이 결정되자 학생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고심 끝에 선택한 전공이, 오랫동안 바란 꿈이, 설레이며 그렸던 미래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생겼는데 과연 그 누가 아무렇지 않게 선택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조성됐다. 트랙 구조조정이 일회성으로 끝나리란 보장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이 됐다. 또다시 5개 트랙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대학본부는 지난 트랙 구조조정 당시, 모든 구조조정 절차가 끝난 후 학생에게 결과를 공지했다. 통보에 가까운 공지에, 본부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지난 2일과 15일, 본부는 '트랙 구조조정 관련 학생대표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열었다. 트랙 구조조정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학생대표들이 제기한 여러 의문에 대한 본부의 답은 대부분 '기준이 그렇다'였다. '트랙 신설, 변경, 통합, 폐지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에 따른 결과라는 말이다.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트랙 신설·통합 후 2학년부부터 4학년까지 편제가 완성된 연도부터 재학생 수가 4월 1일 기준 2년 연속으로 주간 45명, 야간 30명 미만이면 해당 트랙이 폐지된다.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재학생 수'는 제1트랙 및 제2트랙으로 선택한 인원의 합을 말한다. 휴학한 학생은 시행세칙에서 정의한 트랙 선택 인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 휴학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예외 조항은 없다.

트랙 폐지 절차와 관련한 오해도 있었다. 시행세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폐지된 트랙은 학생 모집이 중지되며,

재학생이 남아 있지 않을 때 트랙 폐지 절차가 완료된다. 학생들은 트랙이 폐지 절차를 밟을 때, 전공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학사운영규정」 제16조 2항에는 '수강신청 인원이 전공교과목 10명, 교양교과목 20명 미만인 경우 해당 교과목을 폐강함을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무처장의 승인이 떨어지면 인원과 무관하게 강의 개설이 가능하다.

시행세칙의 가장 큰 허점은 이의신청 조항이다.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트랙의 신설, 변경, 통합, 폐지에 이의가 있는 트랙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기획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구성원'은 해당 트랙 소속의 교수를 말한다. 시행세칙이 인정하는 이의신청 가능 주체는 학생이 아니다. 이번 트랙 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 ICT디자인학부 학생회가 '트랙 구조조정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본부는 결과를 받아보겠다 했지만,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확인할 수 없다. 시행세칙에 근거한 이의신청이 아니니 말이다.

트랙 구조조정은 기획위원회와 교무위원회, 그리고 총장이 결정한다. 이를 견제할 이의제기 역시 학생이 아닌 교수의 몫이다. 결과는 오롯이 학생이 겪어야 할 몫인데, 과정에는 학생 의견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두 차례의 트랙 구조조정 간담회를 거치며, 시행세칙의 허점이 속속 드러났다. 수면 위로 떠오른 이상, 해결해야 한다. 조만간 교무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간담회를 통해 전달된 학생대표와 학생의 의견이 최종 결과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지 알 수 없지만, 부디 보여주기 식의 소통은 아니었길 소망한다.

신혜림 편집국장



지난 7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이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저녁 8시를 넘긴 시간이지만 독성유원지를 비롯한 한강공원은 많은 사람으로 북적인다. 돛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들도 수두룩하다. 비록 한강공원이 야외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해이해진 방역 의식을 틈타 코로나19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성희 기자

■ 기자수첩

지난달 26일, 한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어 3일 후, 전자발찌를 절단한 채 도주해 50대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전자발찌는 전자감독제도에서 사용되는 장치이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밀착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보호관찰관의 직무유기 논란이 제기됐다. 담당 보호경찰관이 전자발찌 훼손 6시간 후 체포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보호관찰관의 초동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에게는 업무 지침 및 단순 매뉴얼만 제공된다. 역할에 대

‘무고한’ 피해자를 막으려면

한 구체적인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관에게 업무지침 및 매뉴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본적인 매뉴얼로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의 물발상황을 적절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호관찰관의 충분한 인력 배치도 뒤따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보호관찰관은 고작 467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감독 대상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4,066명이었던 전자발찌 착용자는 2021년 7월 기준 8,166명으로 늘어났다. 보호관찰관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1명의 보호관찰관이 60명 이상을 관리하는 셈이다.

물론 전자발찌가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보호

관찰관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 수가 늘어나도 재범을 완벽하게 막긴 역부족이다. 게다가 전자발찌는 훼손도 가능하다.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수용제도 등 보다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보호수용제도는 형기를 채운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 수용시설에서 숙식하는 제도다. 주로 아동 성폭력범, 연쇄살인범, 성폭력 상습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위치 추적만으로는 범죄자의 세부적인 행동 관찰에 한계가 있다. 사건을 사후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조정은 기자

■ 의화정

나랑 산에 가자

나는 산을 무척 좋아한다. 산은 내게 죽비를 내려치는 스승이자 다시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 주는 종전소다. 일상에서 무료함을 느끼거나 사람과 일에 부딪히며 조금씩 지쳐갈 때, 나는 어김없이 산으로 향한다. 세상사가 그렇듯 산에서도 목표한 지점까지 오르는 일은 무척 힘이 든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땀이 비오듯 흐른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생각해 보면, 일상에서 나는 살아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 위에 동등 떠서 흐르고만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어디로 가는 지조차 모르고 말이다. 산을 오를 때 내 심장은 그제야 뛰기 시작한다. 그제야 살아 있다고, 그러나 다시 살라고 소리친다. 산을 오를 때 느끼는 힘들은 내가 지은 크고 작은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멀리서 보면 오르막뿐일 것만 같은 산길도 어디쯤에선 내리막을 깔아주고, 산물처럼 착한 바람과 멋진 바위, 기특한 나무와 어여쁜 하늘을 선사한다. 그런 산이 내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차이의 감각'이다.

높은 곳에서 저 아래 내가 사는 세상을 내려다보면, 크고 높고 뻣뻣하게 들어섰던 건물들이 하나같이 장난감처럼 작게 보인다. 돈과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도, 가진 것 없고 실패한 사람도, 잘나

고 못난 사람도, 누가 누군지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저 작은 티끌 같아 보일 뿐이다. 보이저호의 카메라를 돌려 40AU에서 촬영한 지구의 사진을 보며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표현했던 그 의미를, 836M 백운대에 올라 내려다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 차이의 감각을 사진이 아닌 내 눈으로 직접 느끼고 나면, 이상하게도 없던 용기가 생긴다. "인간이 저렇게 작은 존재였어? 저렇게 티도 안 나다면 뭐라도 해도 되겠네, 실패하면 어때, 욕 좀 먹으면 어때, 넘어지면 어때, 다시 일어나면 되지, 멀리서 보면 티도 안 나는 거, 쫄지 말고 다시 뭐라도 해보자."하는 용기 말이다. 그렇게 산이 내려치는 죽비를 한 대 맞고 내려오면, 생생하게 다시 심장이 뛰는 사람이 되어 오늘을 실컷 살게 된다.

내가 매 학기 학생들에게 산에 가고 쪼드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타자와 연대하는 힘을 잃을까 봐, 심장이 뛰는 일을 찾지 못하고 그 푸른 청춘을 그냥 흘려보낼까 봐 무척 염려된다. 그러나 나랑 산에 가자. 산에 가서 심장 뛰는 소리와 차이의 감각을 느끼며 다시 도전할 힘을 얻고 오자. 그러라고 가을이 왔다.

이현정(상상력교양대학 사고와표현과정) 교수

■ 낙산에 올라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어느덧 8월의 끝이 다가오는 지금, 2달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확진자에 일부 지역은 병상이 부족한 상태다. 위중증 증상을 보이는 확진자도 증가해 치료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의료진은 물론, 국민 전체에 닥친 위기다.

현재 서울은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방역수칙에 따르면, 4단계에서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18시 이후에는 3명 이상이 모일 수 없다.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생겨난 방침이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

필자는 주변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자

‘K방역’이 힘을 내야 할 타이밍

주 보고 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수칙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마땅한 시기다. 작은 식당 안에서조차 방역수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집단감염이 되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적인 모임이나 만남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외출 후에는 비누를 사용해 꼼꼼하게 손을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등의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그 밖에도 시행 중인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인지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익숙함에 속아 경계를 늦추진 안 된다.

코로나19로 너무 많은 일상이 변화됐다. 사람들은 달라진 생활을 저마다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필자는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너무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게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은 상황이 아찔히 슬프게 느껴진다.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이 사실 또한 얼마나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체감하게 만들었다.

허전함과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다. 코로나19로 다양한 외부활동에 제약이 있긴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말기로 하자. 서로가 힘을 낸다면 어려운 시기도 이겨낼 수 있다. 하루빨리 마스크가 없는, 만남에 제약이 없는 생활이 오기를 바란다.

채지우(사회과학 1)

기자사령

임수습기자 서민천(사회과학 2) 이준혁(상상력 1) 임혜은(인문 2)

동정란

신재흠(교육대학원) 교수 신 교수는 지난 8월 31일 「서양교육변천사 탐구」 도서를 출판했다.

제 36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당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집기간

2021년 9월 23일(목) ~ 10월 22일(금)
오후 6시까지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주 제

자유 (주제에 제한이 없음)

제출형식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 - 5편 이상

제출방법

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e-mail로만 접수 가능)

제출사항

응모작,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한성공지'에서 다운로드)

발 표

한성대신문 573호 (12월 6일 발행)

시상내역

단편소설 - 60만 원 및 상패
시 - 40만 원 및 상패

비교과 포인트

대회참가 10pt / 당선 80pt (가작 60pt)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신혜림 편집국장 010-8572-0334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hansungnews
인스타그램 @hansungnews
페이스북 @hansungpresscenter

- ※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다른 공모에 입상, 발표 사실이 없는 순수 창작물만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투고, 대필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상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상금을 몰수합니다. 또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당선작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